

❖ 이 정리는 Porter, Stanley E. The Apostle Paul: his life, thought, and letters. Grand Rapids: Wm.B.Eerdmans, 2016 를 임재승, 조명훈이 새물결플러스를 통해 번역한 바울서신연구: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제1장 인간 바울 (2)

바울의 직업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계층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로마 세계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다른 이들 모두에게 일반적인 일이었다. 바울이 기능공이나 가족 노동자의 형태로 일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행 18:2; 고전 4:12; 참조. 살전 2:9; 고후 12:14). 이 증거 구절들을 근거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협소한 생각이다.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모든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일을 했을 것인데, 천막뿐만 아니라 배의 돛이나 극장의 캐노피와 다양한 형태의 전투 장비도 만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했을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한 이유는 지역 교회에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청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떠나버리는 평판이 좋지 않은 유랑 교사 중 하나로 오인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역 회중에게 짐이 되는 대신에 자기 손으로 하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계층은 어떠했을까? 바울이 기능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바울이 일자리를 얻을 만한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따라서 바울의 기독교 운동은 '도시 운동'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기능공은 당시 사회적인 중간계층이었으므로 기독교가 중간계층을 기반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반면에 기독교기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운동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당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는 매우 적은 수의 지주들의 부유한 계층을 구성하고 그 외의 대다수는 가난과 싸워야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바울의 선교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둘의 견해 중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울의 기독교가 확실히 부자들의 운동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울의 종교적-민족적 배경

바울은 유대교의 틀 안에서 성장하고 산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바울이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바울은 그가 팔일째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유대교의 외적 표지이며 율법이다.
- 둘째,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주장한다.
- 셋째, 그는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변론한다.
- 넷째,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현일 것이다. 또 비록 자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지라도 그의 부모처럼 아람어를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람어를 말하는 부류의 유대교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참조. 행 6:1).
- 다섯째,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규정한다(행 23:6).
- 여섯째,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증명되는 그의 열심을 언급한다(갈 1:13-14).
- 일곱째,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했고, 율법적 의에 관해서 흠이 없다고 말한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가 죽은 지 겨우 몇 년 후에 다메섹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그 시대에 유대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팔레스타인 밖에서 율법을 어겼지만, 유대교 법 아래서 처벌받도록 율법 위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정책은 명백하게 기원전 142년에 원래 제정되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Julius Caesar 에 의해 기원전 47년에 재개정 되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구약의 몇몇 예언자가 겪은 것과 유사한 부르심으로 (사 6; 렘 1:4-19) 설명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계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의 '회심'으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회심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그 후가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계시를 받은 이들이 계시 받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삶의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과 예수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적이 있었던가? 이 문제를 설명한 학자들의 학문적 합의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중 일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회심하기 전 예수에 관해 신중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그들의 주장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울과 예수는 그 생애의 교차점이 있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일평생 거기서 살았다. 그는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지만 예루살렘과 다른 주변 지역도 방문하였다. 바울은 비록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십 대 중반에 가말리엘에게 교육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했으며,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집단 안에서 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와 우연히 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그 무리 가운데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둘째, 고린도전서 9:1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바울의 말은 수사학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가 주 예수를 보았는지 여부를 물어 보는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은 바울이 예수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한 설명이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저자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이 책이 바울의 여행 동료인 의사 누가가 작성한 두 권의 책 가운데 두번째 책이라는 것이다. 누가의 저작임을 추가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사도행전의 "우리" 구절들에서 종종 발견된다(행 16:10-17; 20:5-15; 21:1-18; 27:1-29; 28:1-16). 그러나 사도행전의 누가 저작설은 이제 정설이 아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많은 요소가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의 신학과 사도행전에서 그리는 바울의 그림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울을 본 목격자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울은 매우 많은 편지들을 신약성경에 남겼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을 편지의 저자로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

둘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도시에서 설교 사역을 회당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작하는데, 바울 서신에는 회당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의 선교전략이 전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세째, 사도행전은 바울을 매우 설득력 있는 수사학자로 묘사하지만,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런 바울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청중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넷째,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시민권은 중요한 시점에 특별히 그의 안전이 부당한 고발로 위협받을 때 그가 인용하는 정보의 중대한 항목이다.

다섯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경계하며 보호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바울의 삶의 개인적인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둘의 강조점이 다르고,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신학적인 강조점 역시 다르기 때문에 위의 다섯가지 비교에 근거한 의문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